

처용문화제 무당편향?

울산지역 개신교계가 41년간 지속돼 온 지역전통 문화제 '처용문화제'를 특정 종교활동 지원 행위라며 중단할 것을 요구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9월 22일 처용문화제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울산시기독교연합회, 울산시교회협의회, 울산시성서화(聖市化)운동본부, 울산문화연대 등 4개 단체는 "울산시가 처용문화제에 세금을 지원함으로써 무당인 처용을 믿고 따르는 특정 종교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며 지원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처용문화제 지원 관련 조례를 폐지하지 않거나 다른 명칭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공무원의 직무상 종교차별행위를 금지한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으로 울산시 관계자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처용설화는 일연 스님이 지은 <삼국유사> 제2권 '처용왕 망해사조'에 기록이 남아있다. 처용이 아내와 동침한 여신에게 <처용가>를 불러 쫓았다는 내용으로 인간의 갈등을 폭력이나 관용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박지원 기자

놀토 청소년 인성교육

부산 우곡심성개발교육원(원장 장명화)은 제4기 청소년 마음운동산 꾸미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본 강좌는 2007년 국가청소년위원회 소속 한국청소년진흥센터로부터 '청소년 인성교육 인증프로그램'으로 지정된 우수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다.

현직 초·중등교사를 지도교사로 9월 27일부터 4개월간 매월 노는 토요일마다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30분간 진행된다.

수업 내용으로는 9월 27일 만다라 명상, 자연명상, 명상체조, 고정관념 변화, 낚숨호흡과 삼지법, 10월 11일에는 발우공양, 자연과 환경, 소리명상, 시조명상, 11월 8일 장애체험, 참뽕새, 12월 13일 독해명상, 심상관 명상 및 수료식이 마련된다.

모든 교육을 수료하면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15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고, 모든 활동 내용은 한국 청소년 진흥센터에 기록되어 언제든지 자신의 이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회비 3만원, 선착순 40명에 한한다. (051)740-6288

박지원 기자

마음에 부처님 종자를 심다

연합순례단 제주 삼사순례·수계법회

부산 백양산 불광사(주지 보광)와 가야 대원사(주지 법지) 등 부산지역 5개 사찰 연합순례단 600여명은 제주 삼사순례 및 약천사 회주 해인 스님을 증명법사로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첫날인 9월 22일 저녁 7시 부산 연안여객터미널을 출발, 설봉호 상갑관에 삼존불을 모시고 저녁 10시부터 약 3시간가량 선상명가천도 및 방생법회를 열었다. 보광 스님의 입제사를 시작으로 대원사 성덕 스님 외 범패 시연단의 어산작법과 함께 선망부도 영가천도재를 지낸 뒤 방생하고 보살계 수계에 앞서 그동안의 지은 죄업을 참회하고 서원을 세우는 시간을 가졌다. 법회가 끝난 후에도 대부분의 신도들은 부처님을 모신 갑판 위에서 자리를 지키며 각자 철야정진기도를 하면서 내일 있을 보살계 수계를 위해 몸과 마음을 가다듬었다.

제주에서 맞은 둘째 날 새벽 6시부터 제23교구본사 관음사(주지 원종), 극락도량 약천사, 법화사(주지 도현) 등 제주지역 3대 사찰을 3보1배 참회기도로 순례했다.

관음사 주지 원종 스님은 1시간여 특별 법문을 마친 후 "제주도

는 부산의 1개 구 정도의 도민이 살고 있지만 사람은 200여 개가 넘을 정도로 불심이 가득한 섬"이라며 "제주도민의 불심을 가슴 가득 안고 돌아가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약천사에서는 회주 해인 스님에게 10시부터 2시간여 보살계를 받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심중대계와 사십팔경계에 관한 법문을 들은 뒤 오후 1시부터 수계 법회를 봉행했다. 해인 스님은 "오늘은 마음이라는 땅에 부처님 종자를 받아 심는 날"이라며 "더러운 오물도 흙으로 잘 덮어주면 훌륭한 거름이 되듯 남의 허물도 덮어줄 줄 아는 배려심을 아끼지 말고 널리 베풀며 항상 보살행을 행하고 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비와식과 보살계서원 낭독 후 신도 대표 30인이 해인 스님에게 수계절을 받았다.

해인 스님은 "시간이 짧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해 아쉽다. 단양 광덕사에 64만평 규모의 세게일화도량 건립불사를 마치면 철야수계법회를 열고 그때 밤새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하자"며 수계 법회를 마무리했다.

회향법회에서 연합순례단을 이끈 불광사 주지 보광 스님은 "예



부산 불광사, 대원사 등 5개 사찰 연합순례단이 제주 약천사에서 열린 수계법회에서 연비를 받고 있다.

정보다 150명이 늘어난 600여명이라 걱정이 앞섰지만 부처님의 가피력이 총만해 모두 원만회향할 수 있었다"며 "모든 기도과 수

행의 근본은 참회에 있듯 보살계를 받았으니 모두 성불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dbp@hanmail.net

불교계 주장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증후군'?

창원중부경찰서 강선주 서장 발언 논란, 경남 불교계 '사퇴 촉구'

경남 불교계가 9월 17일자 '경남매일' 기고문을 통해 종교편향에 대한 불교계의 4대 요구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증후군'이라 비판한 창원중부경찰서장을 항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명박 정부와 불교계가 종교편향 논란으로 갈등하는 가운데, 경찰계 인사와 불교계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기는 여정수 경찰청장에 이어 두 번째다.

경남불교신도회 이순환 회장과

마산 정법사신도회 김상현 회장, 창원 성주사신도회 김태종 회장, 마산거사리회 최종식 회장은 23일 오후 창원중부경찰서를 항의 방문했다.

경남불교신도회 김태종 부회장은 24일 "전날 오후 이순환 회장과 함께 신도회 차원에서 강 서장을 30여분 간 만나 불교계의 격양된 분위기를 전하고 공직사퇴 및 언론을 통한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며 "마산창원불교연합회 회

장인 원정 스님 등 지역 스님들도 26일경 항우 대책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강선주 서장이 공직에서 물러날 것 ▲언론 통해 공식 해명 및 사과할 것 ▲경찰서 내에서 종교 편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 ▲판약 불자라면 개인적으로 참회할 것을 요구했다.

강선주 경찰서장은 기고문에서 "지난 촛불시위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의 진압과 총무원장 차

랑에 대한 검문검색은 법치의 잣대에 비추어 정당하고 합법적인 공무집행"이라며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법에 의해 인기가 보장된 경찰청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불법 집행 수배자들의 수배해제까지 요구하는 불교계의 초법적인 처사야말로 법과 현실을 왜곡하고 정당한 법집행을 불법으로 치부하는 환영에 빠져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지원 기자

불국토를 찾아서

부산 열린종교인 모임

"타종교 배려하면 종교편향 없어요"

최근 종교편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사회 평화와 화해를 기원하는 소통의 장이 열렸다. 9월 22일 오후 1시 부산 가톨릭신학대학 운동장에서는 부산시를 기반으로 활동 중인 4대 종단의 성직자들이 축구대회를 열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축구대회는 부산 열린종교인 모임이 주최하고 불교와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 등 4대 종교가 함께 참여한다.

이웃종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종교간 대화장을 넓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지난 1998년부터 10여 년간 꾸준히 이어져왔다.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타종교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열린종교 10여년의 결실이 축구경기로 나타날 것"이라며 "앞으로는 축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 종목을 채택해 축제의 장으로 변모해야하고, 또 신도들 간의 화합 도모를 위한 만남의 장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개신교 안하원 목사는 "우리 모임에서는 종교편향 문제가 있기 훨씬 이전부터 종교간 화합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며 "젊은 종교인들이 타종교를 이해하고 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축구로 다진 10년 ... 신도 함께하는 축제로

오늘 만큼은 스님들은 가사장삼을, 신부님과 목사님도 정갈한 목회자의 옷은 고이 접어두고 활동적인 축구 유니폼으로 갈아입었다. 각 종교의 성직자들이 직접 선수로 뛰기 위해 지난 1년간 수행정진하며 틈틈이 축구 훈련에 매진했다.

부산지역 4대 종단에서 불교 흥법사 심산 스님과 능인선원 성각 스님, 가톨릭 송도성당 윤화동 신부, 개신교 새날교회 안하원 목사, 원불교 남천교단 김강석 교무 등이 열린종교인모임 공동대표로 구성되었다.

개회식에서 흥법사 심산 스님은 "종교편향 문제로 온 나라가 혼란스러운 요즘, 자칫 서로에 대한 오해와 갈등이 깊어질 수

경기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가톨릭이 우승, 불교는 준우승을 차지했다. 각팀의 선수들은 승패는 비록 갈렸지만 승자도 패자도 없는 아름다운 경기를 펼쳤다.

이날 대회에 특별히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회장이자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이 행사장을 방문해 "4대 종교의 성직자들이 축구 경기를 통해 한마음이 됐으면 좋겠다"며 종교간 화합을 강조하고, 격려금을 지원했다.

서로 다른 축구 유니폼을 입은 4개 종교 성직자 선수들은 몸을 부딪치며 땀을 흘리는 가운데 종교 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화합을 다지는 귀중한 시간이 됐다.

오세룡 부산경남지사장

빙의 퇴마 최면을 전수합니다

빙의 치유

- 영을 직접 불러 누구인지? 무슨 원인인지? 소원이 무엇인지? 천도

전생체험

- 원통한 인간의 인과 응보와 원인을 찾아 업장을 소멸하고 사업자 사업자에게 사업성취를, 기도자는 기도성취를, 원인모를 악질증상 등을 좋은 운으로 돌릴수 있습니다.

치유가능한 증상들

- 빙의(귀신병), 퇴마,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공포, 불안공포, 불면증, 만성두통, 게임중독, 약물중독, 급한성격, 집중력, 성적향상 등등
- 빙의, 퇴마, 최면을 배우실분 ●자기최면, 타인최면을 배우실분
- 자녀들의 성적향상을 위한 부모님
- 포교활동에 꼭 필요하신분(성직자 특별우대, 종교불문)
- 전수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대체의학, 침술, 최면, 빙의, 퇴마 등을 한곳에서 전수가능하며 전수 후에 각 시도 지사도 가능함.

- 최단기간 실전교육
- 최면기술 누구나 가능합니다.
- 어디 아프세요, 불치병 몽땅 상담하세요.
- 하는 일마다 안풀리세요, 당신의 사주를 바꾸세요
- 빙의(귀신병) 퇴마, 최면? 100% 전수 - 치유
- 우울증, 공황장애, 산소수맥
- 비염, 발기부전 특효

부산본부 : 부산시 북구 화명동 1388-8 지장사
☎ 051)364-5586, H.P 010-3056-331

- 부산교육 : 화, 수, 목 ●서울교육 : 금, 토, 일

한국 빙의 퇴마 최면 연합회 본부 지 장 사 현오 합장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388-8 (부산 지하철 2호선 화명역 2번출구 전자랜드 후문 앞)
TEL 051)364-5586 / 010-3056-3315 HTTP://WWW.JIJANGSA24.ORG